



강원도 평창 순백의 풍경에서 치유와 유희 얻는다



강원도 평창은 겨울에 다시 태어나는 고장이다. 가을이 지나고 매서운 추위가 시작되면 평창의 자연은 고유의 색을 버리고 순백의 옷으로 갈아입는다. 겨울왕국의 풍경은 시리면서도 황홀하다. 찬 공기를 들이마시며 대자연을 감상할 수 있는 산과 목장, 눈꽃 축제와 동계스포츠, 그리고 평창의 먹거리는 하얀 풍경을 동경하고 직접 찾아 나선 사람만 받을 수 있는 선물이다.

글 신재우 기자·사진 임귀주 기자



월정사는 불교 성지 오대산 자락에 있다. 천 년의 숲이라고도 불리는 전나무 숲길을 품고 있다. 오대산국립공원에는 월정사 이외에도 상원사, 육수암 등 유명한 절과 암자가 많다.



눈꽃으로 물든 정화의 겨울길

평창 오대산은 1천563m의 비로봉을 주봉으로 호령봉, 상왕봉, 두로봉, 동대산이라는 다섯 개 봉우리를 품고 있다. 금강산에 견줄 만한 절경을 자랑하는 바위산과 전나무 숲, 주목·난타나무 군락이 장관을 이룬다. 산봉우리가 평평하고 능선의 경사도 완만해 사시사철 등산객의 사랑을 받는다.

오대산은 종교적으로도 의미가 큰 산이다. 불교의 성산(聖山)으로 추앙받는데 한국 불교문화를 꽃피운 ‘월정사’(月精寺)와 ‘상원사’(上院寺) 그리고 여러 암자를 품고 있다.

진부면 자락에 자리 잡은 월정사는 신라 선덕여왕 때 자장율사가 창건했다. 석가모니의 진신 사리를 봉안하고 있는 국내 5대 사찰 중 하나다.

월정사 여행의 백미는 일주문에서 사찰 입구 금강교까지 이어지는 1km 남짓한 전나무 숲길이다. 1천 년이 넘는 세월을 월정사와 함께했다.

거칠 것 없이 하늘로 뻗어나간 나무기둥의 늠름한 자태가 압권이다. 언제부터 전나무가 자랐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다. 산신령이 절을 보호하려고 심은 전나무 아홉 그루가 퍼져 뻗곡한 숲을 이뤘다는 전설만 전해진다.

이 길은 봄·여름·가을·겨울에 걷는 맛이 다르다. 이 중에서도 겨울철에 걷는 천년의 숲은 고독이자 치유의 공간이다. 소복하게 눈을 맞은 전나무 사이를 걷다 보면 저도 모르게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된다. 새마저 지저귀를



멈춘 고요 속에서 영적인 분위기는 더욱 고조된다. 이렇게 자연에서 위로를 받으며 40분쯤 걸으면 절 입구에 도착한다.

월정사 경내 한복판에는 한국전쟁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팔각구층석탑(국보 제48호)이 서 있다. 불자들은 전쟁의 포탄을 피해간 석탑 앞에서 합장한 후이나 발걸음을 옮긴다.

상원사는 여기서 한참을 더 가야 한다. 두 사찰을 잇는 길이 ‘오대산 선재길’이다. 월정사 옆을 지나가는 오대천 물줄기를 따라 9km쯤 걸으면 된다. 도로가 생기기 전에는 스님들이 다니던 길이 었다. 선재는 화엄경에 나오는 동자의 이름으로 선재길은 ‘선지식을 찾아 돌아다니던 젊은 구도자가 걸었던 길’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오르막 내리막이 거의 없고 눈을 밟으며 걸을 수 있어 겨울 트레킹 코스로 제격이다.

상원사는 월정사의 말사 격이지만 이야기도 풍부하고 문화재도 많다. 단종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후 원인 모를 피부병에 시달린 세조가 문수보살(선재동자)을 만나 병을 고친 곳이 바로 상원사다. 상원사 문수전에 들어가려던 세조의 옷자락을 고양이 물고 늘어져 법당을 수색하니 불전 뒤에 자객이 숨어있었다는 이야기도 유명하다. 상원사에는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동종 중 가장 오래된 동종(국보 제36호)과 국내 유일의 동자상인 목조문수동자좌상이 보존돼 있다.

한겨울 평창이 가진 고유한 풍경은 횡계리에 있다. 여름철 고랭지 채소를 키우던 밭은 겨울에 황태덕장으로 변신한다. 횡계천변을 따라 늘어선 황태덕장은 매서운 추위에서도 무언가를 만들 고야 마는 강원도의 힘을 보여주는 것 같다. 동해에서 잡아 올린 명태의 배를 갈라 씻은 다음 두 마리씩 엮어 덕장에 걸어놓으면 밤에는 얼고 낮에는 녹기를 반복한다. 이렇게 서너 달이 지나면 몸통은 통통하고 껍질은 붉은 황색을 띤다. 그래서 황태는 ‘겨울이 빛은 작품’이라고 불린다.

대관령면 횡계리 일대는 겨울이 되면 황태덕장으로 변한다.





선자령은 등산로 경사가 완만하다. 겨울에는 눈발 위에서 풍력발전기가 돌아가는 동화 같은 풍경이 일품이다.



매년 겨울 열리는 평창 눈꽃축제 행사장에서는 썰매와 스노 보슬레이 등 다양한 겨울 놀이를 즐길 수 있다.



아름다운 설국에서 즐기는 트레킹

눈 덮인 선자령을 한번이라도 밟아본 사람은 그 막대한 감동을 잊을 수 없어 다시 한 번 그곳을 찾는다고 한다. 눈꽃 산행의 백미로 꼽히는 선자령은 평창군 대관령면과 강릉시 성산면 사이 백두대간 주능선에 솟은 산으로 해발 높이는 1천158m다.

선자령 트레킹 출발점은 대관령마을휴게소다. 휴게소 입구에서 2.5km 정도 걸으면 새하얀 눈발 위에서 풍력발전기가 힘차게 돌아가는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진다.

겨울철 움츠러들었던 신체도 마음도 아름다운 설국에서는 조금씩 이완된다. 산속 음이온의 기운 덕분인지 세찬 바람에도 활력이 생긴다.

새하얀 눈이 그려내는 눈부신 절경을 감상하다 보면 금세 정상에 도착한다.

휴게소에서 정상까지 거리는 5km다. 정상에서는 남쪽으로 발왕산, 서쪽으로 계방산, 서북쪽으로 오대산, 북쪽으로 황병산이 보이고, 날씨가 좋으면 강릉시내와 동해까지 내려다보인다.

같은 길을 내려와도 좋지만 양떼목장 방향으로 하산해도 좋다. 대관령마을휴게소에서 시작해 선자령 트레킹 코스 10.8km 구간을 도는 데는 3~4시간이 걸린다. 경사가 완만해 초보자도 충분히 완주할 수 있다.

선자령 이외에도 평창에는 유명한 산행 코스가 많다. 평창과 홍천 사이에 있는 계방산은 상고대로 유명하다. 상고대는 대기 중 수증기가 나무에 달라붙어 생긴 결정체다. '서리꽃'으로도 불리는데 얼음처럼 맑고 투명하다.

상고대는 기온이 낮게 이어지고 눈도 많이 와야 유지된다. 계방산이 남한에서 한라산, 지리산, 설악산, 덕유산 다음으로 높은 봉우리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산행 출발 지점인 운두령과 정상의 표고차는 488m에 불과하고 운두령까지는 차가 올라갈 수 있어 한겨울에도 정상 산행이 어렵지 않다.



대관령은 우리나라에서 눈이 가장 많이 내리는 곳으로
최정상급 스키장들이 들어서 있다. 올해 알펜시아는
2월까지 빙동 축제를 연다.



평창은 올림픽의 도시다. 2018년 동계올림픽을 기다리는 평창의 겨울은 흥분이 가득하다. 눈과 얼음을 만끽할 수 있는 각종 겨울 축제가 열리고, 알펜시아리조트, 용평리조트, 휘닉스파크 등 국내 최정상급 스키리조트는 눈발을 질주하는 동계스포츠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북적인다. 1993년 대관령 시골 청년들이 모여서 시작한 '대관령 눈꽃축제'는 올해로 24년째 이어지고 있다. 횡계리를 지나는 송천은 겨울이면 꽁꽁 얼어버리는데 이 거대한 얼음판이 축제장으로 이용된다. 눈꽃축제에서는 눈과 얼음 위에서 즐길 수 있는 스릴 넘치는 체험 행사들이 열리는데 가족 단위 체험객이 많다. 노르딕 미니코스, 스키점프, 아이



스 컬링, 아이스하키 등 동계올림픽 경기종목을 체험할 수 있고, 눈썰매, 얼음썰매, 스케이트, 스노 래프팅, 스노 보슬레이, 이글루 체험까지 다양한 레포츠 활동도 할 수 있다. 횡계리 인근에는 유명 목장들이 있다. 한겨울이 되면 대관령삼양목장, 대관령양떼목장, 대관령하늘목장에서는 들판을 뛰어노는 소와 양을 더 이상 볼 수 없다. 하지만 장쾌하게 펼쳐진 눈밭에서 눈사람을 만들고 대관령 언덕의 설경을 즐길 수 있다. 옛날 방식의 '비료푸대썰매'를 타고 싶다면 하늘목장으로 가면 된다. 화려함을 입은 평창의 밤을 구경하는 것도 큰 재미다. 평창에서는 스키장 주변에서 야경을 즐겨볼 만하다. 조명을 환하게 밝힌 슬로프는 마치 불에 타는 것 마냥 붉은 색을 발산한다. 평창 알펜시아는 2월까지 '하얼빈 빙설대세계' 축제를 연다. 세계 3대 겨울 축제 중 하나인 하얼빈 빙설대세계에 참여한 아티스트가 만든 얼음 조각 작품이 선보인다. 타지마할, 성 바실리 성당, 수원화성 등 세계 문화유산들이 빛과 어우러져 몽환적인 세계를 연출한다. ❶

Food 평창의 깊은 맛



① 황태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고 머리를 맑게 해준다. 해풍에 그대로 말린 북어와 달리 황태는 살이 통통하고 부드러다. 용평스키장과 알펜시아 주변에 유명 음식점이 많다. 황태구이 정식, 황태국, 황태미역국, 황태찜, 황태전골 등 다양한 요리를 맛볼 수 있다.

② 한우
대관령 청정지역에서 키운 평창 한우는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는다. 큰 일교차 덕분에 단단한 육질과 깊은 맛이 일품이다. 다른 한우에 비해 오메가3와 지방산 함유량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관령한우타운에서는 한우를 등급별로 고른 후 상차림비를 내고 숯불에 직접 구워먹을 수 있다.

③ ④ 메밀
해발 700m 청정고원에서 자란 평창의 메밀은 질이 좋기로 유명하다. 메밀은 쌀이나 밀가루보다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비타민, 칼슘, 인산 등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 '메밀꽃 필 무렵'의 배경인 봉평면에서는 메밀막국수, 메밀 싹 비빔밥, 메밀전병 등의 메뉴를 맛볼 수 있다.



⑤ 산채요리
오대산 국립공원 주변에 요릿집이 많다. 식당에서는 인근에 자생하는 산나물을 봄철에 채취해 저장해놓고 일 년 내내 손님을 맞는다. 산나물은 특유의 향과 담백함 때문에 특별히 조미료를 넣지 않아도 맛이 뛰어나다. 정식은 밥과 된장국, 스무 가지 이상의 산채 반찬으로 차려진다.

⑥ 송어
평창은 국내 최초이자 최대 송어 양식지다. 고영양 저칼로리를 대표하는 식품인 송어는 칼슘이 많고 비타민과 철분 등 각종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다. 송어는 초창이나 간장에 찍어먹거나 채 썬 채소, 다진 마늘, 콩고물, 참기름을 함께 넣고 비벼 먹으면 맛있다.

INFORMATION



둘러볼 곳



효석문학관
이효석 문학관은 가산 이효석의 생애와 문학세계를 볼 수 있는 이효석 문학전시실과 다양한 문학체험을 할 수 있는 문학교실, 학예연구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학전시실은 그의 생애와 문학세계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창작실이 재현되어 있고, 옛 봉평 장터 모형과 문학과 생애를 다룬 영상물 등을 통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흥정계곡

봉평면 흥정산에서 발원한 흥정계곡은 물길의 길이가 6km에 이른다. 사시사철 수량이 풍부하며 물이 맑고 깨끗하다. 계곡을 따라 물푸레나무, 싸리나무, 단풍나무 등이 숲을 이루고, 상류에는 냉수성 어류인 열목어와 송어가 다양 서식한다. 여름이면 녹음의 정취와 맑고 시원한 물놀이를 즐기려는 여행객이 몰려든다. 이 맑은 계곡 옆에는 허브나라, 효석문학관 등이 있다.



방아다리 약수

진부면 척천리에 있는 약수. 철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약수터 주변은 붉은 물이 흐른다. 물빛은 푸르고 맛은 약간 짭고 쇠맛이 난다. 사이다처럼 쏘는 듯한 느낌이 있다. 위장병, 피부병, 빈혈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약수터 주변에는 유명한 전나무 숲이 있다.

평창송어축제

매년 1월 평창 진부면 일대에서 열린다. 우리나라 최초이자 최대 송어양식지인 평창에서 겨울송어의 참맛을 볼 수 있는 축제다. 겨울철 강 속 큰 바위를 망치로 두드려 겨울 물고기를 사냥했던 선조들의 삶을 축제로 승화시켰다. 송어는 연어과에 속하는 희귀성 어종으로 한국의 동해와 동해로 흐르는 일부 하천에서 살며, 평창에서 자란 송어는 부드럽고 쫄깃쫄깃한 식감이 일품이다. 송어낚시와 썰매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다.



오대산 국립공원

오대산은 백두대간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간을 중심으로 오대산지구와 소금강지구, 계방산지구로 나뉜다. 비로봉 정상에서 볼 때 동대 너머의 청학산 쪽 소금강 지구는 바위산으로 금강산에 견줄 만한 절경이며, 비로봉에서 평창 쪽으로 내려가는 오대산지구와 계방산지구는 부드러운 휴산으로 산수가 아름답고 문화유적이 많다. 이들 산봉우리 대부분이 평평하고, 봉우리 사이를 잇는 능선 또한 경사가 완만하고 평탄한 편이다.

대관령 하늘목장

대관령 최고봉 선지령과 붙어 있는 1천만㎡ 규모의 목장이다. 한일산업이 1974년부터 조성한 이 목장은 젖소 400마리와 한우 100마리를 방목하고 있으며 일반인에게는 2014년 9월 개방했다. 방문객은 넓은 대관령 초원에서 방목된 젖소를 만날 수 있고, 승마, 양떼 먹이주기 등 동물 체험활동을 할 수 있다.

